

금리 고민 타파 해 줄 적금 '베스트 3'

우대조건 충족 쉽고, 월 납입한도 30만원 이상

'인싸적금' '데일리플러스적금' '담뱃값적금'

<신한>

<KDB>

<부산>

매해 목돈 만들기를 결심하는 새해초지만 저금리 기조에 은행권 적금 금리는 고작 연 1~2%가 대부분이다. 고금리 적금이 긴皓 나오지만 그림의 떤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입 대상이 한정적이거나 카드결제 실적 등 우대 조건이 까다롭다. 그렇지 않으면 만기가 짧거나 납입 한도가 적어 목돈 모으기 마땅치 않다.

예외는 있는 법. 이런 조건이 없으면서도 연 3% 이상 금리를 주고 쓸쓸하게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은행권 적금 상품도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런 기준을 충족한 상품은 신한은행 '인싸 자유적금', KDB산업은행 '데일리 플러스 적금', BNK부산은행 '담뱃값 적금' 등이다.

선정 기준은 △민기 12개월 이

상이고 △우대금리 조건 중 카드 결제와 급여이체 실적 조건이 없으며 △월 납입한도가 30만원 이상인 것으로 됐다.

신한은행 인싸 자유적금(만기 12개월)은 지난달 19일 오픈뱅킹 출시 이후 은행들이 잇따라 선보인 관련 상품 중 하나다. 기본금리 연 1.5%에 오픈뱅킹 이용액 관계(0.5%)하고 오픈뱅킹을 이용해 다른 은행 계좌에서 매월 인싸 계좌로 입금하면 (1.00%) 우대금리를 최대 연 1.5% 받는다.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입금 하더라도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으면 1.00%의 우대금

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싸 자유적금은 월 납입 한도(100만원)가 비교적 큰 것이 장점이다. KEB하나은행의 '하나 원큐 적금'의 경우 오픈뱅킹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금리는 연 3.60%지만 월 납입한도는 20만원이다.

KDB산업은행의 '데일리 플러스 적금'의 자유 적립액 기본금리는 연 1.25%(12개월)지만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적립되는 자투리 금액이나 영업일마다 적립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금리 연 2.75%를 준다. 이렇게 입금한 금액에 우대 금리(0.5%) 조건까지 충족하면 최고 연 3.25%를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대 3년이며 1년마다 기본금리가 0.05%씩 늘어난다. 월 납입 한도도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BNK부산은행의 '담뱃값 적금'은 이름과 달리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최고 금리도 연 3.7%로 세 상품 중 가장 높지만, 월 납입 한도는 30만원이다. 만기는 12개월이며, 기본 금리는 연 1.50%다. 모바일 앱 '썸뱅크'에 가입할 때 최고 우대금리(2.20%)와 은행 창구 가입 시 최대 우대금리(0.50%) 간 차이가 크다.

출석체크 우대금리는 만기까지 출석한 횟수에 따라 차등화했다. 주(월요일~일요일)마다 3일 이상 출석하면 0.03%, 2일 출석은 0.02%, 1일 출석은 0.01%를 준다. 3일 이상 출석한 주의 횟수가 30번 이면 0.03%에 30을 곱해 0.9%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많다는 의미다.

그런데 KB손보 등 손보사들이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지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보험료율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 보험개발원 회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사실상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허용'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보험료 인상 불확실성이 커지며 보험업계의 피로도가 쌓이자 금융당국의 보험료 개입이 보험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주주 절반 정도는 외국인 투자자인데 이 상황을 이해할 투자가 있겠냐"고 되물었다.



CES서 새로운 듀얼스크린 폰 공개

LG 풀더블폰 안 만드나 못 만드나?

는 전설의 풀더폰 '레이저'를 풀더블 스마트폰으로 재해석해 이달 중 미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LG전자는 오는 2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할 V60씽큐(ThinQ)에서도 '듀얼 스크린'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LG전자가 자사 기술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내실 다지기', 즉 영업적자 탈출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영업적자가 수년째 이어진 상황에서 투자비 대비 이익내기 쉽지 않은 풀더블 스마트폰을 출시시키는 바겁다는 것이다.

LG전자 MC사업본부는 지난해 3분기까지 18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MC사업본부의 매출액은 1조5223억원 영업적자는 1612억원이다.

매출은 작전 분기 대비 5.6% 감소했지만, 영업손실은 같은 기간 48.5% 개선했다. 비결은 원가 절감. 지난해 6월 평택 생산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인건비를 8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다. 최근 한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 MC사업본부의 생산 공장 베트남 이전으로 연간 줄일 수 있는 인건비는 약 800억원에 달한다.

LG전자 관계자는 "풀더블 스마트폰은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소량이지만 갤럭시 폴드를 내놓을 때마다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 회웨이도 자국에서 메이트X의 인기를 실감한 상황이다. 모토로라



설 명절 선물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소형 앤마기 8일 오전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뛰어난 가성비와 편리성을 자랑하는 소형 앤마기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일렉트로맨 베이직 목어깨 마사지기(2만 9,800원)'를 6천대 준비했으며 '일렉트로맨 종아리발 마사지기(17만 8,000원)', '일렉트로맨 발마사지기(7만 9,800원)'도 각각 4천대 가량 준비했다. 시중 유사제품 대비 최대 30%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당국 압박에 車보험료 인상 '동작 그만'...다음주 윤곽 나올듯

손보업계, 보험개발원 회신 전 인상 추진했다가 중단

일부 손해보험사가 금융당국의 '허가' 사인 없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강행하다가 결국 당국의 압박에 중단했다. 지난해 말부터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던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상 시기와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업계는 금융당국의 가격 개입이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고 불법소리를 내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

보험은 오는 29일 책임개시일부터 3% 후반대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전산에 반영했지만 결국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주까지 기다리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KB손보가 종대를 매면 뒤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려고 준비했던 다른 손보사도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KB손보는 지난해 11월25일 손보사 중 가장 먼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바 있다.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훌쩍 넘어 필수록 손해인 상황이 되자 보험료 인상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한 조치였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적 영업손해율(보험금/보험료)은 94.7%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 적정 선은 77~78%로 여겨진다. 자동차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율이 약 20%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만 놓고 보면 손보사 9곳 중 7곳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다.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광주, 대전보증!
미래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살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